

민형배 22.7%·김영록 18.1%…오차범위 내 접전

광주일보·리얼미터 - 전남광주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신정훈 9.2·주철현 6.8·강기정 6.5·이개호 4.7·이병훈 3.3·정준호 3.2%
광주시민 33.4% 민형배 지지…전남도민 23.3% 김영록 선택 '출신지 강세'
민주당 지지층 민형배 24.6·김영록 19.7·신정훈 10.0%…치열한 경선 예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하나된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대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를간 광주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물 중 차기 통합단체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민형배 의원이 22.7%를 기록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가 18.1%의 지지율을 보이며 두 후보 간 격차는 4.6%p로 오차범위(±2.5%p)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어 신정훈 국회의원이 9.2%로 3위를 기록했으며 주철현 국회의원 6.8%, 강기정 광주시장 6.5%, 이개호 국회의원 4.7% 순으로 집계됐다.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정준호 국회의원은 각각 3.3%와 3.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합계 17.6%에 달해, 향후 부동층의 표심이 이동이 경선 구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정치적 텃밭인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만큼,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당 지지층(1024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체 결과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졌다. 민주당 지지자 중 24.6%가 민형배 의원을 선택했고 김영록 지사는 19.7%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9%p로 전체 응답자 기준보다 격차가 소폭 벌어졌으나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

머물러 있어 어느 한쪽의 우세를 단정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이다. 이어 신정훈 의원 10.0%, 주철현 의원 8.4%, 강기정 시장 7.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표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를바 '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주시 거주 응답자 중에서는 33.4%가 광주 광산을 지역구로 둔 민형배 의원을 지지해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에서 김영록 지사의 지지율은 11.3%에 그쳤고, 강기정 시장은 10.7%를 기록했다. 신정훈 의원은 6.8%였다.

민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20%대 박스권에 갇혀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를 넘기면서 전남에서 김지사보다는 지지율이 뒤쳐졌지만, 전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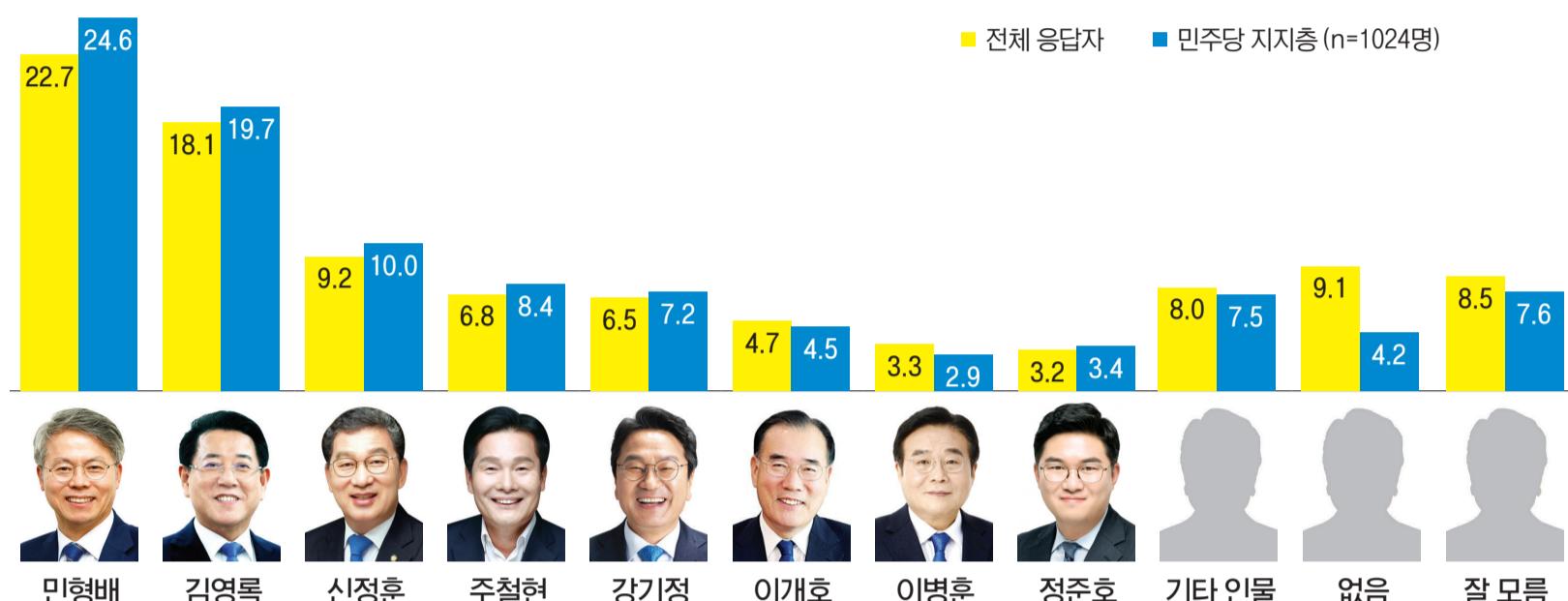
광주 내에서도 구별로 지지세가 갈렸는데,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광산구에서 37.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북구(34.7%)와 서구(31.8%)에서도 30%대를 넘기며 강세를 보였다.

반대로 전남도 거주 응답자들은 현직 도지사인 김영록 지사에게 23.3%의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다. 전남 지역에서 민형배 의원은 14.5%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고, 나주·화순이 지역구인 신정훈 의원이 11.0%로 뒤를 이었다. 주철현 의원은 10.5%를 기록했다.

전남도 권역별 조사에서는 김영록 지사가 순천·광양 등 동부권(25.2%)과 목포 등 중서부권(24.2%)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

다만 광주와 인접한 나주·화순·담양 등 광주인접권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인 신정훈 의원이 24.0%를 기록하며 김영록 지사(20.0%)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저력을 보였다. 여수·해남 등 남

■ 전남광주특별시장 지방선거 여론조사 (단위:%)



부전에서는 여수갑이 지역구인 주철현 의원이 22.7%를 기록해 김영록 지사(22.8%)와 초박빙 승부를 벌였다.

연령별 선호도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 기반은 확연히 갈렸다.

민형배 의원은 경제 활동이 완성한 40대와 50대에서 강세를 보였다. 40대 응답자의 31.0%, 50대의 26.6%가 민 의원을 지지해 김영록 지사(40대 14.1%, 50대 16.8%)를 크게 앞섰다.

반면 김영록 지사는 고령층인 70세 이상에서 33.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 의원(14.7%)을 두 배 이상 따돌렸다. 18~29세 청년층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16.6%로 김영록 지사(9.6%)보다 우세했으나, '잘 모름' 등의 유보적 응답이 29.2%에 달해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관망세가 두드러졌다.

이번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민형배 의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26.2%가 민 의원을 지지했고, 김 지사는 18.8%였다. 중도층

에서도 민 의원(23.6%)이 김 지사(18.3%)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보수층에서는 민 의원(20.1%)과 김 지사(15.1%)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지지 정당별 분석을 보면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민형배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29.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도 민 의원 지지율이 3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차기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 '광주 대 전남'이라는 지역 대결 구도와 함께 '4050세대 대 6070세대'의 세대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히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의 힘비교가 엇갈린 가운데, 광주 지역구 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광주를 기반으로 전남까지 확장

성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경선 과정에서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또한 나주·화순의 신정훈 의원과 여수의 주철현 의원이 각자의 거점 지역에서 만만치 않은 지지세

를 확보하고 있어, 이들이 통합 경선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주목할 점은 '기타 인물'을 지지한 응답이 8.0%에 달했고, '지지 후보 없음'(9.1%)과 '잘 모름'(8.5%)을 합친 부동층 비율도 17.6%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사실상 유권자 4명 중 1명(25.6%)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인물을 갈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18~29세(29.2%)와 30대(30.8%) 청년층에서 부동층 비율이 30% 안팎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향후 경선 국면에서 이들 '스윙보터'의 표심 향배가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광주특별시법' 국회 발의…'이재명표 지방분권' 실현 주목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 입법 시작
재정 특례·중앙부처 이전 빠져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운명을 가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공식 발의되면서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됐다.

시·도지사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지역이 요구했던 핵심 쟁점인 재정 특례와 중앙부처 이전 조항이 조안에서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총력전'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공식 접수했다.

법안 제출에는 전준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충남·대전 통합 법안도 동시에 제출돼 '지방 소멸' 위기에 맞

선 민주당 차원의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됐음을 알렸다.

전준호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이번 법안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기형적인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재정 자립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소식이 전해지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주간 쉼 없이 달려온 끝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못했고,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와 같은 정부 부처 이전 요구가 법안에 담기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통합의 인센티브라 할 수 있는 핵심 알맹이가 빠진 채 상정됐다는 우려를

표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사·도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음을 강조하며 '법안 보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320만 시·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지난해 말 통합 추진 선언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법안 제출까지 이어진 것은 광주·전남 대도약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조력과 지원이 사·도민의 단합된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번 통합 법안이 현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시·도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심사 단계에서 공공기관 유치와 재정 특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실패...이번이 마지막 기회"

엑스에 글 올려
부동산 가격 정상화 강한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자신의 엑스(X·엣 트위터)에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끊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비정상의 정

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고 반문하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지사 시절 성과인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언급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정비를 완료했고,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26 남도장터
선물특선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전통식품 / 가공식품

전라남도 공공형 종합유통 플랫폼
최대 50% 할인!

행사기간 2026년 1월 2일 ~ 2월 18일
배송마감 2026년 2월 12일 18:00까지

N 남도장터 namdojangteo 남도장터

바로 구매하러 가기